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풀면서 살고 싶어요”

목포 삼학초 이찬서군, 경로당 등 취약계층에 생수 50박스 전달 벌써 6번째 기부...어머니 가정 교육 영향 나눔 실천 지속 다짐

“어머니로부터 콩 한 쪽도 이웃과 나누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듣고 살았습니다.”

목포 삼학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어린 기부 천사 이찬서 어린이가 지난 26일 목포시삼학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생수 20개들이 50박스(시가 5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무더운 여름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조금이나마 폭염을 극복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시원한 생수를 드리겠다는 어린 학생의 기부여서 그 의미가 크다.

기탁된 생수는 삼학동 관내 경로당 4개소와 독거노인, 지역아동센터 2개소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 군이 만 5세 때 TV를 통해 춘천 의암댐 사고를 목격하고 수고하는 분들에게 자신의 용돈으로 돕고 싶다고 어머니에게 부탁해 이윤음료 10상자(12만원 상당)를 익명으로 기부를 시작한 이후 벌써 6번째다.

이 군의 봉사는 어머니의 가정교육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찬서 어머니 또한 친

정어머니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봉사를 이어오다가 아들에게 나눔 대를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적지 않은 울림을 주고 있다.

이 군은 올해 5월 달에도 삼학동복지센터를 통해 장난감이나 과자 값을 아껴서 저금통에 모아둔 용돈으로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10세대에 김셋트를 전달한 적이 있다.

또한 지난해 5월에는 코로나19로 힘들게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 목포시보건소에 생수와 음료수 등 2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같은 해 8월 목포시보건소에 음료수, 생수, 사탕과 위문 손편지를 써서 30만원 상당을 기탁해 방역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직원들을 위로했으며 지난 1월 목포시보건소에 파베기와 요구르트 등 15만원 상당을 기탁하기도 했다.

당시 목포시보건소를 세 번이나 위문한 찬서 군은 모두를 위해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는 보건소 직원 분들 덕분에 어린이들이 안전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당연하



목포 삼학초교 2학년 이찬서군이 지난 26일 목포시삼학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자신의 용돈을 모아 마련한 생수 20개들이 50박스(시가 5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목포시제공>

다고 생각해 저금통을 털어 기부했다고 겸손해 했다.

이 군의 어머니 이은옥(44)씨는 “이웃의 나눔을 통해 찬서가 나눔의 기쁨을 깨닫고 행복을 느낀 것 같으며 적은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따뜻한 정을 전해 드린 것 같다”고 전했다.

이명옥 삼학동장은 “용돈을 아껴 이웃들에게 나눔실천을 한 이찬서 어린이의 마음이 너무나 기특하다”며 “고사리 손으로 전하는 따뜻한 사

람이 삼학동에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어머니에게서 ‘콩 한 쪽도 이웃과 나누야 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듣고 살았다’는 이 군은 “폭염으로 지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시원한 생수를 드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보의 보도로 이찬서군의 기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군은 지난 7월1일 김대중 전남교육감의 취임식에 초청돼 김 교육감이 직접 단상 위에서 격려해 주기도 했다. /목포=정해선기자



호남대-가톨릭대-BIAF LINC 3.0 공유협력 협약

호남대학교 LINC 3.0 사업단(단장 양승학)은 최근 경기도 부천 가톨릭대학에서 가톨릭대학교(단장 나건), BIAF(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서재환)와 상호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 대학과 BIAF의 공동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은 ▲산학협력 및 지역 산업 진흥을 위한 공동 노력 ▲산학협력을 통한 취·창업 연계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산학협력 플랫폼 공동 구축 및 연계 ▲실감미디어 분야 연구 활성화 ▲게임 응용 기술 및 디지털 확산 분야 연구 활성화 ▲비대면·글로벌 교육모델 공동 개발 및 운영 등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인적 물적 교류를 약속하고 공유협력 센터를 통해 성과관리 및 LINC 3.0 사업 운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양승학 단장은 “기관간 협약을 통해 대학간 공유협력의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글로벌 협력의 기회를 확장해 산학협력의 성과공유를 기반으로 다양한 수요 기반의 교육 활성화와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임재만기자



광주 학서파출소, 보이스포싱 예방 홍보

광주 동부경찰서 학서파출소는 30일 “최근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선대학교 및 남광주시장 등을 방문해 시민들을 상대로 보이스포싱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젊은 학생들을 상대로 보이스포싱 현금 수거책 및 뭉툭피싱 피해사례와 대처법을 설명하는 등 시민들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신종 범죄 수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김오만 학서파출소장은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이체 및 현금 인출 그리고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혹시라도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를 받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복기자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파란꿈지역아동센터 후원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남구 파란꿈지역아동센터에 희망풍차 물품(농수산물 세트)을 전달하며 훈훈한 나눔을 실천했다.

지역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사회공헌을 통해 광주 지역 내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후원하는 삼성전자 광주자원봉사센터는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윤영숙 파란꿈지역아동센터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후원에 감사하며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신복위 광주·전라지역단, 장애인시설 물품 전달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전라지역단(이하 신복위·단장 이형규)은 30일 광주 남구 소재 ‘광주시 지적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방문해 기부물품을 전달했다.

신복위 광주·전라 지역단은 지난 7월 출범한 이래 광주·전라지역에 거주하는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대외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왔다.

이번 진행된 사회공헌활동은 신복위 광역지역단 출범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지역 나눔 행사로 신복위 창립 20주년을 기념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행사다.

이형규 광주·전라 지역단장은 “올해는 신복위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해로 추석을 앞두고 광주·전라지역의 소외된 이웃에게 온정의 손길을 전하고 싶다”면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신복위와 지자체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복위는 9월 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 애로를 완화하고 청년층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과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 프로그램’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오복기자



영광군 6개 농·축협·RPC, 저소득층에 쌀 기탁

영광군은 30일 “최근 관내 6개 농·축협(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 영광농협, 백수농협, 서영광농협, 굴비골농협, 영광축협)과 영광 RPC가 영광군에 700만원 상당의 쌀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은 군청 군수실에서 진행됐으며 강종만 군수, 양재영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장, 정길수 영광농협장, 조형근 백수농협장, 강병원 서영광농협장, 김남철 굴비골농협장, 이강운 영광축협장, 강선종 영광군 통합RPC 대표가 참석했다.

군은 기탁받은 쌀(10kg) 300포를 읍·면 복지팀을 통해 저소득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양재영 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장은 “최근 지급받은 재난(행복)지원금 각 100만원으로 쌀을 구매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쌀을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종만 군수는 “추석을 맞아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으로 소중한 나눔을 실천해 준 관내 농·축협 조합장과 RPC대표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기자



광양경제청, 산·학·연·관 혁신성장협의회 개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경제청)은 최근 (재)전남지역사업평가단과 함께 여수에서 산·학·연·관 13개 기관으로 구성된 GFEZ 혁신성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광양만권 입주 기업과 연구기관, 학계 등 혁신 주체들이 모여 입주기업의 활력 제고와 혁신 성장 등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경과 보고, 김철우 한국물류경제연구원의 특강, 회장 선언,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광양경제청은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등 총사업비 4억3천만원으로 혁신클러스터 기반 조성 및 입주기업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35개 사에 기술컨설팅, 마케팅 지원 등 기업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 성장을 돕고 있으며 앞으로도 8개 사를 추가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광양=양홍렬기자



LX 광주전남본부, 공간정보 전문 인재 양성 교육

한국양정정보공사(LX) 광주전남지역본부는 30일 “본부 및 2개 지사 직원을 대상으로 공간정보 전문 인재 양성 교육을 지난 29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한국판 뉴딜 선도를 위한 공간정보 전문가 양성 및 지역인재의 역량개발에 앞장서기 위함이다.

또 본부가 올해 초 선정한 비전에 맞춰 사람 중심의 디지털 국토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이번 교육 자리가 마련됐다.

김영옥 광주전남본부장은 “디지털 국토정보의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대국민 행정서비스 이행에 부합되는 지역 인재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광주전남본부를 시발점으로 교육이 전국 13개 본부로 확대될 것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안재영기자



서구청소년상담센터 ‘나를 찾아 떠나는 캠프’ 운영

광주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지영)는 최근 광주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나를 찾아 떠나는 청소년 캠프를 개최했다.

‘나를 찾아’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서구청 캠프는 청소년 개인의 개성과 자아 정체감을 확립할 수 있도록 ‘나’를 주제로 작품공모전과 진로특강 등 재미를 더한 레크레이션 전문진행자와 진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됐다.

광주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및 부모상담 ▲Help Call 청소년전화1388 운영 ▲진로·학업·부모자녀·친구관계 상담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예방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심리검사(성격유형검사 등) ▲위기청소년 상담 및 사례관리 ▲학교부정소년 지원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재영기자



여수경찰, 학교폭력 예방 등굣길 캠페인

여수경찰서는 지난 29일 여수구봉중학교 정문에서 학교폭력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교폭력·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등굣길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올 하반기 신학기를 맞아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와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으며, 여수경찰서는 오는 11월18일까지 학교폭력 특별예방활동 기간으로 지정·운영한다.

정성록 서장은 “학교폭력 특별예방활동 기간 동안 청소년들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학교폭력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기자

부음

●오순임씨 별세, 김영록(전남지사)씨 모친상=발인 9월1일(목) 오전 10시 목포효사랑장례식장 101호실(061-242-7000).

●김상환씨 별세, 정인수(남양건설 전무이사)씨 장인상=발인 9월1일(목) 낮 12시 창원시립삼복공원 장례식장 5호실(055-712-0900).